나와 하나님의 진공밀착 가능성

(욥기 12:1~25)

1.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3.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4.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진공 밀착 가능성>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진공 밀착 가능성'

요즘은 일반 가정에서도 진공밀폐 포장을 생활화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불을 보관해야 하는데 부피가 너무 큽니다. 비닐 속에 이불을 넣고 공기를 싹 빼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크던 겨울이불도 과장해서 종이처럼 얇아져서 보관하기 편하게 됩니다. 음식도 진공포장을 해서 보관하면 공기에 의한 산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불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서 비닐이 밀착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밀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진공밀착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돈 문제와 밀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행의 구덩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건강문제가 있다면 우리 마음은 건강문제와 밀착이 됩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마음이 하나님과 진공밀착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환란이 주어져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은 깨지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은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현장에서 보여주었던 신앙상태를 일상 속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쳤지만 주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풍랑이 아닌 하나님과 진공밀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 실낱같은 틈조차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욥기는 무조건 풍랑이 없는 삶을 바라기 전에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면 풍랑과는 관계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진공밀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앞부분의 3절까지는 기가 막혀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세 친구가 욥을 책망하는데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풍자적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욥을 책망하지만 그러한 논리는 욥도 알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지식은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의 핵심이 4~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삶에 재앙이 주어지면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것조차도 잘 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악한 자에게도 후한 형통과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상식에 매달려서 욥의 상황을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규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으로 기대하며 흘러가던 구약시대나, 일어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며 종말 때까지 흘러갈 신약시대는 동일하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주님의 십자가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재앙과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죄악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죄인 됨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의 형태와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인 맞춤형의 사랑의 농도가 옅을수록 오히려 눈에 띄게 악한 사람에게도 평강과 형통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이 볼 때에는 친구들의 지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7절을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 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소발은 오묘하고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일에 대해서 욥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에 욥은

이 말을 바꾸어서 자기가 결백하다는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한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발의 말을 받아서 13절부터 마지막까지 펼치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욥의 이해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소발의 말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아는 정도의 지식은 새나 짐승 한 마리를 잡아다 놓고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주권에 연결시킵니다.
새들의 날개의 색깔이며 깃털이며 눈동자며 부리며 발과 발톱이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오묘하심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곤충 한 마리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는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이해력의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욥의 천재적 영성이 드러납니다.

욥의 천재적 영성은 오묘하고 높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묘하므로 우리의 이해력이 따라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세 살짜리 아들이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끌지 않는 한 아이가 아버지의 걸음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발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이 가진 지혜의 차이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욥은 지성과 합리성의 깨달음의 문제를 관계로 바꾸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에나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공밀착 된 관계를 유지하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밀착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이유를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묘하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학력수준을 아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남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생각의 간격이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소발은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했지만, 욥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밀착관계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밀착될 수 있는 길은 크든 작든 곧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일어났다면 소발과 같은 사람은 스스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자신의 주체

성을 활성화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었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이끄실 방향이 있으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나는 밀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왜 이런 돈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몸에 이상이 생겼어도 그렇게 된 이유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밀착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신 그 주체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생각과 판단과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간격은 사라지고 진공밀착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수풀 뒤에 숨어 하나님과의 거리가 벌어지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주체성을 활성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항변했던 것입니다.
욥이 볼 때에 친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된 상식에서 비롯된 오해를 가지고 자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진공밀착 된 신앙생활을 해온 욥으로서는 이들의 말이야 말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욥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밀착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기도문이 십자가를 전제로 한 것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전제로 하시고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서클을 완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남을 제자들이 해야 하는 기도도 십자가를 전제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곧 세상에 대한 나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히 세상일에 대해서 죽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만 함을 뜻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돈에 가 있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입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음도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마음을 쓸 수 없게 된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곧 하나님과의 밀착을 위한 방법입니다.

욥은 주님의 십자가를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라간 빈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접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판단할 때조차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내 입이 말하고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삼아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밀착형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사람이든지 나의 주체성이 활성화 된다면 공기가 들어가서 부푼 이불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삶을 이끌어가다 보면 죄인 맞춤형의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과 환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주체성을 죽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순간에 나의 주체성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 하나님과 사이가 진공밀착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먼저 기억하고 주기도문을 생활 속에서 반복함으로 욥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공밀착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풍랑 속에서도 주님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대적들을 향하여 용서를 빌었던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